

수능 독서 영역,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과정위원회(박상규, 박미연, 조혜숙)

1. 들어가며
2. 수능 국어 영역 독서 제시문 및 문항의 검토
 - 2.1. 제한된 시간과 과도한 독해 부담
 - 2.2. 맥락 없는 개념의 나열
 - 2.3. 지문에 제시되는 개념 수의 과다
 - 2.4. 배경지식 활용의 어려움
 - 2.5. 문항의 문제점
3. 나오며

1. 들어가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이하 '수능'으로 지칭함)(2018년 11월 시행) 시험 직후, 이에 대한 논란은 그 어느 해보다 컸다. 국어 영역의 경우,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중국의 우주론'을 설명한 과학 제시문과 만유인력을 연계한 문항이었지만 그 이외에도 제시문 내용의 수준, 제시문에 포함된 어휘의 생소함 등 여러 면에서 언론을 중심으로 질타가 쏟아졌다. 수능 점수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 모집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점수를 분별할 수 있는 이른바 고난도 문항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불수능'이 초래되었다는 해설도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수능을 치를 학생들의 불안감 및 이에 따른 사교육 시장의 발 빠른 움직임 등을 알리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는 단지 한 제시문과 문항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대입과 수능 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는 복합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분석과 해결을 위한 탐구는 뒤로하고 감정적 대응에 몰두하다가 흐지부지되리라는 우려와 다음 해에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되리라는 염려를 하게 되었다. 다음 해에 이와 유사한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능 제시문과 문항이 국어 교육의 목표와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국어 교과 차원의 분석,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를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수능 시험은 1994학년 대입을 위해 도입된 후 2019학년 대입까지 26년 동안 평가가 진행되면서 오지선다형이라는 선택형 문항으로 치러지고 있다. 그사이에 수능에 대한 정책 및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수능도 몇 차례 변화가 있었다. 교육과정 변화에 맞추어 2014학년도 대입에서는 ‘언어 영역’에서 ‘국어 영역’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사고력에 바탕을 둔 인지 능력 평가’에서 ‘학습의 성취도 평가’로 바뀌게 되었다. 2014학년도부터 수준별 평가로 국어 A/B형이 도입되었다가 2017학년도부터 다시 단일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다. 외견상 변화가 있어 보이지만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능의 체계나 목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본래 이 평가를 도입할 때의 취지였던 사고력 및 창의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전국국어교사모임 교육과정위원회에서는 수능 국어 영역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토론하였다. 우리는 수능 국어 독서 제시문과 문항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최근 3년간(2017~2019학년) 수능 국어 영역의 독서 제시문과 문항(문항 번호는 홀수형 문항 기준)을 검토하였다.

2. 수능 국어 영역 독서 제시문 및 문항의 검토

2.1. 제한된 시간과 과도한 독해 부담

2017학년부터 2019학년까지의 수능 국어 영역의 독서 제시문 내용과 주요 개념 및 문서 통계는 다음과 같다.

연도	분야	문항	제시문 내용
2019 수능	인문	39~42번	가능세계의 개념과 성질
	사회	16~20번	매매 계약 시 발생하는 양 당사자의 채권 및 채무 관계
	인문/과학	27~32번	서양의 우주 발전과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의 우주론

2018 수능	인문	16~19번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담긴 핵심적 사고와 그 의의
	사회	27~32번	환율의 오버슈팅을 사례로 본 정부의 정책 수단
	과학	38~42번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구성 및 전송 방법
2017 수능	인문	16~20번	지식의 구분에 대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콰인의 주장
	사회	37~42번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 실현을 위한 법적 의무
	과학	33~36번	반추 동물의 탄수화물 분해

연도	분야	문항 수	주요 개념	문서 통계				비고
				글자수		날말	문단	
				공백 포함	공백 제외			
2019 수능	인문	4	가능세계, 필연성, 가능성, 유사성	1,788	1,366	427	5	㉠, ㉡ 등 기호 제외. 단어 뜻 설명 : 글자수에는 포함, 문단 개수에는 포함 안 함
	사회	5	계약, 법률 효과, 법률 행위, 매매 계약, 채무 불이행	1,873	1,410	469	7	
	인문/ 과학	6	지구 중심설, 태양 중심설,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 만유인력	2,571	1,949	602	8	
2018 수능	인문	4	목적론, 물질론, 환원론, 기계론적 모형	1,488	1,123	330	5	
	사회	6	정책 수단, 환율 변동, 오버슈팅, 통화량과 물가, 금리, 환율의 관계	2,460	1,867	597	5	
	과학	5	부호화, 디지털 통신 시스템, 엔트로피, 부호율	1,646	1,240	410	4	
2017 수능	인문	5	수학적 지식, 논리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 분석 명제, 종합 명제, 중심부 지식, 주변부 지식	2,090	1,582	513	5	
	사회	6	보험, 고지 의무, 보험료를, 기댓값, 청약, 계약 해지권	2,601	1,962	643	6	
	과학	4	반추 동물, 섬유소, 탄수화물, 효소, 분해	2,046	1,577	472	4	
문서 통계 평균				2,062.56	1,564.00	495.89	5.44	

위 9개의 제시문을 살펴본 결과 수능 국어 영역의 독서 제시문에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제시문 수가 3개로 줄면서¹⁾ 한 제시문의 길이가 길어졌다. 2016학년도 수능의 경우 4개 제시문(각 제시문의 길이는 1,147~1,589자) 총 5,672자였던 데 비해 2017학년도 이후부터는 3개 제시문이 출제되었고 각 제시문의 길이도 평균 2,000자가 넘었다. 둘째, 제시문 수가 줄다 보니 한 제시문에서 출제해야 할 문항 수가 평균 5개가 되었고 많은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 제시문에 여러 개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었다. 셋째, 제시문이 길어지고 그 안에서 다루는 개념이 많아지면서 독서를 하며 이루어지는 정보 처리의 어려움과 부담 문제가 있었다. 국어 영역 시험 시간은 80분이며 화법과 작문, 문법 해당 문항이 15개, 문학 문항이 15개, 독서 문항이 15개로 구성된다. 독서 영역의 경우, 평균 495개의 낱말로 쓰인 글 3개를 읽고 15개의 문항을 25분 내외로 풀어야 하는 것이다.

제시문의 통계 검토를 통해 제시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개념이 많아지면서 수험생의 독서 영역에 대한 부담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길이가 길어도 한 문단에서 하나의 중심 내용을 담고 있고 각 문단 간 맥락이 정확하여 독해에 어려움이 없다면, 제시문의 길이가 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제시문들은 길이가 길다는 것 외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국어 과목에서 배우는 바람직한 글의 구조²⁾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이후 설명할 맥락의 부재, 개념의 과다 등의 문제가 있었다.

2.2. 맥락 없는 개념의 나열

수능 국어 영역의 독서 제시문은 시험 문제용으로 만들어진 글이다. 따라서 국어 교과서에서 읽는 글이나 신문의 기사, 칼럼, 단행본 도서의 글과 달리 맥락에 대한 설명 없이 개념이 나열되는 등 작위성이 두드러진다. 제시문에 중심 개념의 생성 또는 도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생략된 채 개념이 연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2017학년도 인문 제시문을 예로 보자.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

1) 2014학년도 이전에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언어' 6개 제시문 21문항, 2014학년도부터는 A, B형으로 나누어 A형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독서' 5개 제시문 15문항, B형은 '인문, 사회, 기술, 예술, 독서' 5개 제시문 14문항으로 출제되었다.(5개 제시문 중 4개가 출제됨) 2017학년도부터는 3개 제시문 15문항으로 출제되고 있다.

2) 바람직한 글의 구조란 한 편의 글이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고, 각 문단은 일정한 짜임새를 가지며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각각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글의 일정한 짜임새는 대부분 화제에 대한 개념 및 맥락 설명, 화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필자의 주장 제시, 내용 정리 및 제언과 같이 이루어진다.

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된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 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은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

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나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제시문에는 지식의 구분이 왜 필요하거나 중요한지와 같은 맥락이 없이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콰인의 견해가 나열되어 있다. 지식에 대한 포퍼와 콰인의 서로 다른 입장, 콰인의 제안인 총체주의의 한계가 우리가 지식을 얻고 수정 및 축적하는 과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른 채 글을 읽게 되는 것이다.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에 대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어휘로 맥락 없이 설명되는 글을 읽어야 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풀기 위한 단편적인 정보 확인과 단기 암기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 풀이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문항을 먼저 파악하고, 제시문에서 문단별 개념어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정보를 처리해 나가는 방법이 그 하나이다. 그러한 문제 풀이 방법이 인터넷 강의나 사교육 시장에서 권장되기도 한다. 학생 입장에서는 제시문 내용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내면화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로만 제시문을 읽게 되기 쉽다. 이러한 경우, 독서 제시문의 읽기 평가는 시간 내 정보 처리 속도를 재는 성격이 강해지게 되고, 비슷한 유형의 문항 풀이 반복 연습이 필요한 시험이 된다.

또한 맥락은 개념을 우리 삶의 층위로 끌고 와서 의미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시문에 맥락이 없이 개념이 제시된 것은 교육적 의미는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지선다형 평가 문항을 위해 제시문을 작위적으로 생산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 2017 인문 제시문은 지식을 구분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지식의 구분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등 지식의 구분과 관련된 맥락에 대해 설명한 후 글을 서술하면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 의의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2.3. 지문에 제시되는 개념 수의 과다

수능 제시문에서 맥락은 생략되거나 최소화되는 반면 개념의 수는 많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8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도록 글의 분량을 맞추고, 각 제시문마다 어려운 문항을 포함하여 4~6문항을 출제해야 하기 때문에 문항 제작에 필요한 개념을 모두 담았기 때문일 것이다.

2019 사회 제시문을 예로 보자.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 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

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한다.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이 제시문에 사용된 개념을 살펴보면 1문단에 ‘계약, 매매 계약, 법률 효과, 매도인, 매수인’, 2문단에 ‘법률 행위, 채권, 채무, 변제’, 4문단에 ‘실체법, 절차법, 소, 민사 소송법, 민사 집행법’, 5문단에 ‘채무 불이행’, 6문단에 ‘이행 불능, 단독 행위’, 7문단에 ‘원상회복 청구권’이 제시되어 있다. 매 문단마다 여러 개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개념 간의 관계 파악과 개념을 통한 문장 및 문단 이해, 더 나아가 글의 의미 해석이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개념을 이해하고, 용어의 관련성을 생각하며 제시문을 해석하고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018 과학 제시문에는 1문단에 ‘부호화, 정보량, 기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 평균 정보량’, 2문단에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 비트, 비트 수, 허프만 부호화’, 3문단에 ‘삼중 반복 부호화, 부호율’, 4문단에 ‘선 부호화, 차동 부호화’가 제시된다. 전문적이고 복잡한 디지털 송신 시스템의 체계 및 전문 개념에 대한 설명 없이 낯선 개념이 연속적으로 제시된다. 물론 이 개념들은 크게 ‘부호화,

송신기, 채널, 수신기,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 부호율' 정도의 개념으로 간략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디지털 통신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세상임을 고려해 시의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작동 원리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 않은 이상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대한 맥락 및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제시된 개념 및 개념 간의 관계를 이해하여 글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모든 개념을 다 이해해야 제시문 독해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맥락을 통해 개념의 의미를 추론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도 어휘력, 독해력을 키우는 방법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과정은 의미를 모르는 많은 기호들의 관계를 찾아가는 과정과 비슷해, 바람직한 독서 능력의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2.4. 배경지식 활용의 어려움

제시문을 읽으면서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배경지식 측면도 고려해 보았다. 배경지식의 활용은 독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적절한 배경지식을 활용하며 독서하는 능력의 함양 역시 국어 교육의 목표이다. 독서 제시문에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이수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과 내용이 제시되고 있었다. 수능 응시자 및 수능 출제 범위를 고려할 때 수능 국어 제시문의 소재 및 개념은 고등학교 공통 교육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3개년 수능에 제시된 내용 중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내용도 있고 어떤 개념은 선택 교육과정에도 제시되지 않은 것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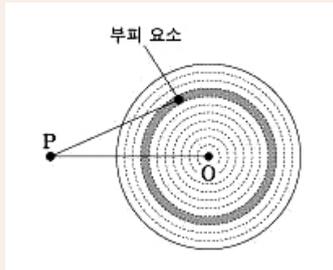
2019학년 사회 제시문의 핵심 개념인 '법률 효과'는 사회탐구 선택과목인 '정치와 법' 교육과정에도 보이지 않는다.('정치와 법' 교육과정에는 '법률 관계'라는 용어는 있으나 '법률 효과'는 없다.) '법률'과 '효과'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합하여 해석한다 해도 법률을 접할 경험이 거의 없었을 고등학생이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19학년 과학 제시문의 경우³⁾ 31번 문항에 대한 논란으로 '만유인력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으면 제시문을 읽지 않고도 풀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될 정도로 학생들의 배경지식의 영향이 절대적인 점은 제시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배경지식인 만유인력은 주어진 지문과 보기를 통해 답을 추론할 수 있는 독해 영역의 국어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에 수긍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경지식의 유무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이 문항의 경우만은 아니겠으나 독해력과 상관없이 배경지식만으로도 풀

3) 2019 과학은 '과학사'를 설명하는 제시문으로 '개념, 과정, 맥락'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글의 구성이고, 서양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천문 이론을 바탕으로 과학적, 철학적 시각이 얹혀 있어 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는 것은 수능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⁴⁾

31.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 껍질을 이루고, 그런 구 껍질들이 구의 중심 O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하며 양파처럼 겹겹이 싸여 구를 이룬다.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 (1)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 껍질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 (2) (1)에서의 구 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동심의 구 껍질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 (1), (2)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 ①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 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구 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구 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 ②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 ③ 질량이 M 인 지구와 질량이 m 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m 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겠군.

4) 2019 과학 4문단 만유인력을 설명하는 과정에 사용된 '질점'(시험에서는 제시문 아래 뜻 제시함), 1문단에 사용된 '회통'이라는 용어 역시 흔히 쓰이지 않는 용어이다. 수능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라는 취지를 고려해도 고등학생에게 전문 분야 용어까지 이해하는 수준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의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질점(質點) 「명사」 『전기·전자』 물체의 크기를 무시하고 질량이 모여 있다고 보는 점. 이 점으로 물체의 위치나 운동을 표시할 수 있으며, 역학 원리 및 모든 법칙의 기초가 된다.

* 회통4(會通) 「명사」 『불교』 언뜻 보기에 서로 어긋나는 뜻이나 주장을 해석하여 조화롭게 함.=회석.

- ④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들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 ⑤ 반지름이 R , 질량이 M 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b 에 중심이 있는 질량이 m 인 구슬 사이의 만유인력은, $R+b$ 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m 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2018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평가되는 사회 제시문의 ‘오버슈팅 현상(단기 급등락)’ 역시 대학의 경제학과 1학년에서 배우는 개념으로, ‘경제’ 교과서의 환율 관련 부분과 비교했을 때 제시문 이해 및 각 사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다. 2017학년도 사회 제시문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는 보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고등학생이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았다. 이렇게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넘어서는 제시문이 제시되고 문항이 출제될 경우 제시문 이해나 문항 해결은 독해력과 상관없이 제시문을 읽는 요령, 문제 푸는 요령으로 문항을 해결하게 된다.

2.5. 문항의 문제점

다음으로 수능 문항의 유형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분류해 보고, 현재 수능 문항의 문제점을 살펴보자.⁵⁾

연도	분야	발문	행동 영역
2019 수능	인문	39.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0.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1.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2. 뒷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추론적 사고 추론적 사고
	사회	16.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7.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8. ㉢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9.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것은?	사실적 사고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추론적 사고 어휘 · 개념
	인문/과학	27. 다음은 뒷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 중 일부이다. 뒷글을 참고할 때, ‘점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8. 뒷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9. 뒷글에 나타난 서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1.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2. 문맥상 ㉡~㉣와 바꿔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적 사고 사실적 사고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추론적 사고 어휘 · 개념

5) 3개년 분석 내용을 제시했지만, 글의 분량상 2019학년도만 실는다.

2014학년도부터 수능 국어 문항의 행동 영역은 ‘어휘·개념,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적용·창의’로 나뉘지만 실제로는 ‘사실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에 해당하는 문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위에는 2019학년의 경우만 제시하였으나, 검토한 3개년의 9개 제시문 총 45문항 중에서 ‘어휘·개념’ 문항이 6개, ‘사실적 사고’에 해당하는 문항이 14개, ‘추론적 사고’에 해당하는 문항이 24개, ‘비판적 사고’에 해당하는 문항이 1개였다. 5가지 행동 영역 중에서 사실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에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독서 영역의 글의 구조와 독서의 방법을 보면 선택과목 ‘독서(와 문법)’ 과목에서 독서의 방법으로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창의적 독해’를 제시하고 있지만 비판적, 창의적 독해는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선다형 평가의 영향이 큰 것이고, 수능이 다양한 독해 능력을 다 평가하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추론적 사고에 해당하는 문항도 각 선택지를 살펴보면 사실적 사고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 발문의 성격 면에서 추론적 사고에 분류했지만 선택지를 살펴보면 제시문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9학년도 인문 제시문의 한 문항을 예로 보자.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P는 모순 관계이다.(기호 ‘~’은 부정을 나타낸다.)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2019 인문 제시문 1문단)

40.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 ②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 ③ ㉡과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 ④ 만약 ㉡이 거짓이라면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다.
- ⑤ ㉠과 ㉡은 현실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이해한 것은?’과 같은 문항은 추론적 사고로 보이나 선택지를 살펴보면 사실적 사고 문항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 ㉡을 비교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문단에서의 정보를 통해 ㉠, ㉡ 각각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 문항이다.

독서 제시문에서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유형 문항이 주로 출제되고 이것이 정형화되면서 독서 영역에 대해서는 문제 풀이 요령을 익히는 공부법이 권장되고 있기도 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시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다루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문제 풀이 요령을 익히는 것이 점수를 얻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정시 선발의 경우, 수능 1점으로 당락이 갈리는 상황에서 사교육 의존이 높아지면서 기계적, 반복적으로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풀며 정보 처리 속도를 높이는 연습을 하며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는 EBS 교재 내용을 연계하여 수능을 출제하면서 배경지식 및 관련 내용을 지식으로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생기면서 더 심화된 현상이기도 하다. 독해에서 배경지식이 차지하는 비중 및 역할을 감안하면 제시문에 대한 선행 학습 및 예상 문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부족한 독해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독해력을 바탕으로 제시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 교재에서 제시된 배경지식을 토대로 문제를 푸는 것은 학생들의 사고력, 독해력을 기르겠다는 수능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출제자들에게 상위권 학생 변별을 위한 고난도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어 제시문 내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항을 출제하도록 했다. ‘교육과정 수준 출제’, ‘수업 충실히 따랐다면 해결할 수준’이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보도 자료 내용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교육과정과 동떨어진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것이다. 그 결과 수능이 끝난 후 그 분야 전문가 및 지식인들도 풀기 쉽지 않은 문항이 출제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게 된 것이다. 2019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과학 31번 문항이 제시문 이해를 넘어 ‘만유인력에 대한 정확한 배경지식이 있어야 풀이가 가능한 문항’, ‘제시문 없이도 만유인력에 대한 배경지식이 충실하다면 풀 수 있는 문항’이었다는 평가는 이런 현상을 잘 보여 주었다. 2018학년도 사회 제시문 29번 ‘환율의 오버슈팅 현상’을 각 사례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 2017학년도 사회 제시문 39번 ‘보험료, 보험금 책정’에 대한 문제 역시 짧은 시간에 개념과 사례를 이해하여 해결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제시문을 독해하고 배경지식을 적용하여 풀기보다는 제시문 독해 및 문제 풀이 요령을 익힌 학생이 오히려 정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문항이었다.

3. 나오며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공교육의 마지막 학년인 3학년 수업에서 좋은 글을 읽고 토론하며 비판적, 창의적 사고, 수준 높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수업이 아니라, EBS 연계 교재 등을 활용한 시험 대비 수업을 하고 있다. 만약 수능 국어 영역이 측정하려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양질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글에서 다룬 문제 제기와 검토는 필요 없었을 것이다.

최근 3년간 수능 국어 영역의 독서 제시문 및 문항을 검토하면서 수능 제시문과 문항의 작위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시문이나 문항에서 매년 약간의 변화를 보여 주는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26년 동안 기본 유형이 지속되면서 제시문 읽기 및 문제 풀이 요령 등 사고력이 아닌 기능적인 요령을 습득해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 평가 도구가 되었음도 확인했다. 이는 선다형 평가로서 수능이 갖는 태생적인 한계에서도 비롯된다.

수능 독서 제시문은 수능 시험지 외의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능 독서 제시문은 설명문도 논설문도 아니고, 교과서 글도 신문 글도 아니다. '9등급 변별을 위한 오지선다 시험용 글'인 것이다. 학생들은 특화된 수능 독서 문제 풀기 방식의 연습을 무한 반복한다. 거기에는 상상도, 비판도, 추론도, 공감도 없다. 따라서 이제 선다형 평가가 아닌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도입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조심스러운 제언을 해 본다. 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과정을 공교육에 도입하여 비판적 사고력,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등을 길러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생 교육 및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다형 문항 평가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2018년 8월 우리나라는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 국가교육회의에서 수능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으로 권고안을 도출했다. 선발 방법, 수시, 평가 방법 등 3가지 주 내용의 개편 권고안 중 수능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선발 방법 비율'은 수능 전형의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 '수능 평가 방법'에서 국어는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다. 선다형 평가가 '공정하다'는 인식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대신 수능 전형 비율이 확대되는 등 교육이 시대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고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수능 문제로 측정되는 것이 진정한 학력이며 지성인지, 수능 시험이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김윤정(2015),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국어 영역 문항 연구 - 1994학년도부터 2015학년도를 중심으로』, 인하대 박사학위 논문

이정희(2016), 『국어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비문학 제재 활용 수업 방법 연구 -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비문학 제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석사학위 논문

주세형, 남가영(2015), 「국어과 읽기 평가 맥락에서 과학 지문의 특성 연구 -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국어) 지문을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8권 제3호, 313~342.

황재웅(2008), 「맥락 중심 읽기와 텍스트 유형의 상관성 고찰 - 비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제38호, 309~337.

교육과정위원회

전국국어교사모임의 소모임 중 하나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현장 적용에 대해 고민합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을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나누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가끔 공부 주제가 무겁거나 지루해지면 국어교육 관련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기도 합니다. 한 달에 두 번 전국모 사무실(종로구 옥인동)에 모여서 공부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박미연(경기예술고, mypark78@daum.net)에게 연락주세요. 환영합니다^^